

## 학문중심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연구

심 영 택 (서울대 박사과정)

### 목 차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본론> 1. 학문중심 교육과정

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배경

나. 지식의 구조와 이점, 그리고 그 효과

2. 학문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

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배경

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3.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

나.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결론>

### <서론>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그것 나름대로의 교육에 대한 큰 공헌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리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여러 교과가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시도해 왔다.

국어교과도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이와같은 이런 시도를 하였다. 이 4차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찬, 반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국어과 교육과정에 도입한 기존의 비판을 살펴보고, 본고에서 비판하는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에서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취지의 문제점으로 첫째, 국어라는 하나의 교과 속에 상호관련되는 원리를 찾을 수 없는 이질적인 세 학문을 단순 복합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학문중심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핵심지도 내용을 수사론, 문법, 문학 이론에서 다루는 지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배우게 되면 언어의 표현력과 이해력이 신장되며 문학작품의 이해, 감상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지식의 이해는 기능(skill)의 개발에까지 나아가는 파급 전이효과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표현/이해, 언어, 문학의 세 영역의 단순 복합으로 구성된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구성요소들의 이질성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의 국어과 교육의 교과적 위상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박영목 외 2인 에서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제5차 초,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연구개발 (RR 86-45)에 따르면 국어과가 다루는 모든 영역 심지어는 가치관 교육영역까지 고루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과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나 내용의 구성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표도 된다고 한다.

내용과 관련된 두번째의 문제점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목표(학년 목표)"와 "내용"사이의 구분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 제4차 교육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항목들은 실제로는 내용이라기보다 목표의 성격에 더 가깝다. 넷째,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4차 국어과 평가의 실시 결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편향되어 있으며, 총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영역(특히 말하기와 듣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말하기, 듣기 영역의 평가를 지식위주의 지필평가로 실시하고 있고, 언어수행에 대한 직접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각각 교육과정의 체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은 체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이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하여 비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국어과 교육과정이 이론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과 교사양성과 같은 교육

과정을 살펴보는 기초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4차 국어과 교육과정만을 비판하는 것은 4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처음의 시도이면서 5차, 6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 <본론>

#### 1.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하여

##### 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배경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에 있어서 당시 공교육제도에 대한 「지적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라는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비판이 더욱 강화된 것은 金子孫市<sup>1)</sup>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적 배경으로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말에 원자폭탄을 만들어 국방력이 소련보다 상위에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1949년에 원폭실험을 성공하고, 1957년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실험을 성공하여 이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는 스푸트니크 충격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미 시작된 고등학교 자연과학과 수학교육개선운동은 다른 각 분야에서도 일제히 연구를 시작하였고, 1959년에 이르러 이 운동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것이 우즈홀 회의였고, 여기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주장이 출현한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 안전을 위한 교육회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안전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교육의 목적을 개정해야 했다. 그래서 브루너는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응을 위해 지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듀이의 철학), 순수하게 지성을 위해 지성을 발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주장은 「사회성과 학문성은 그 우위를 점하는 지위에 있어서 그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즉 브루너는 학문성이 사회성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교육

1) 金子孫市 編著, 현대교육과정론, 『교육학 연구 전집 8』, 제일법규출판사, 1976, pp.86-88.

의 목적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브루너가 주장하는 중요개념인 '지식의 구조'와 '탐구와 발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지식의 구조와 이점, 그리고 그 효과

'구조'의 의미를 파악하는 한가지 방법은 '기능'과의 대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조와 기능의 차이는 '안'과 '밖'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다. 구조가 사물의 '안'을 말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설명이다. 구조가 사물의 '안'을 기술한다고 할때 그 말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사물을 하나의 온전한 전체, 외부와의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완결된 실체로 파악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흔히 구조의 전체성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우산의 구조와 기능을 비교해보자. 전자는 우산은 "가운데에 대가 있고.."식으로 대답할 수 있으나, 후자는 우산은 비를 막는 것이라는 대답에 초점을 둔 것이다.) 물론 이 전체로서의 구조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들 요소는

첫째: 요소들은 반드시 그 요소들 상호간에 일정한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는 점

둘째: 하나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체적인 구조와의 관련속에서 그 구조에 의하여 비로소 주어진다. 우산의 경우에 우산의 살은 분명히 우산의 구조에 들어있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우산의 살'이 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우산이라는 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때이며, 우산과의 관련을 떠날 때 그것은 하나의 철사토막에 불과하다.<sup>2)</sup>

해당학문 분야의 폭넓은 구조와 관련을 맺지 않은 특수한 사실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몇가지 근본적인 의미에서 비경제적이다. 첫째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은 이미 학습한 것을 앞으로 당면할 사태에 적용하

2) 이홍우, Bruner: 지식의 구조, 교육과학사, 1987, pp.11-14.

3)金子孫市(앞의 책, p.93)는 학문의 구조는 하나의 지식분야 즉 하나의 학문영역의 기본관념 및 그것과 그의 다른 지식과의 관련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일반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학습은 지적인 회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주는 바가 없다. 셋째로, 학습에서 얻은 지식을 서로 엮어매는 구조가 없을 때 그 지식은 쉽게 잊어버려진다.

이점: 우선 구조를 '한 교과를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의 상호관련된 체계'로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구조의 이점을 지니게 된다. 구조는 그것을 학습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 1)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 2) 기억하기 쉽게 하고
- 3) 학습이외의 사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적 전이) 그리고
- 4)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해당 학문 분야의 첨단에서 그 학문을 발전시키는 학자들이 하는 일이나 그 일의 성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구조는 '고등지식과 초보적인 지식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지식을 이루고 있는 학문의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학문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수업은 어떠한 수업을 말하는가? 「교육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사회과 연구수업의 하나로 오늘날 교육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발견학습' 또는 '탐구학습'의 방법에 의한 것이다.(자세한 것은 이홍우, 1992, 82쪽 참고) 이것은 수업의 외부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방법상의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공식'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 자신이 강조하고 있듯이, 학생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적 '탐구'를 통하여 스스로 '발견' 또는 (회상)해 내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탐구와 발견 등, 외부적인 특징은 곧 노예소년으로 하여금 지식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탐구의 결과로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의 아이디어로서의 탐구학습 또는 발견학습은 원리를 가르치되, 그 원리가 학생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해하는 수단을 결들여서 가르쳐야 한다는 아이디어이다.

효과: 이와 같은 발견법은 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보고있다<sup>4)</sup>.

1) 구성력의 배양: 학습자는 단순한 행동의 주체자가 아니라 환경이나 대상을 그 자신의 활동적 심상에 따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정보의 설명력과 자료의 처리능력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함유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2) 문제해결력의 함양: 문제해결이란 문제자체의 파악을 위한 지식을 가져야만 하고, 그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일이며, 정보를 사태에 맞도록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을 갖는 일이다.

3) 전이력의 증대: 발견법은 학습자에게 자신의 지식형성, 대상들의 대조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원리 및 태도를 갖게 하므로써 훈련의 전이를 낳게 하는 것이다.

4) 약호체제의 고도화: 발견법은 약호체제의 고도화를 통해 예견력을 가진 보다 일반적인 체제로 높여 주는 데 그 유효성이 있다.

5) 직관적 사고의 확대: 직관적 사고는 불확실한 장면에서 예측의 성립, 언어화되지 않은 신념과 이해, 환경적 제현상에 대한 "영상적 인지 표상" 등의 특징들을 가진다.

6) 내적 보상의 자율화: 인간은 어떤 것에 관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발견하는 과업으로서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발견법에 있어서 발견과정에 대한 책임은 발견주체에게 있다. 그 스스로의 모형형성, 모형의 적용, 그 결과의 검증, 그리고 이 과정상의 기대감, 친숙성, 예견력 등의 심리적 상태 등은 발견수행에서 오는 지적 흥분-내적 보상-에 의해 촉발된 발견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

4) 이경섭, 교육과정 유형별 연구, 교육과학사, 1990, pp.85-87.

## 2. 학문중심 국어과 교육과정

### 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정의, 기본방향, 배경

이대규<sup>5)</sup>는 국어과 교육과정을 장기적 교육과정, 중기적 교육과정, 단기적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문교부에서 공표한 각 단위학교-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된 국어과 교육과정 전체 또는 각 단위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결과로서의 장기적 국어과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각 단위 학교의 각 학기별, 각 학년별 국어과 교과서는 결과로서의 중기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국어교과서에 기초를 둔 단원의 수업계획이나 실제 수업이나 수업의 결과는 단기적 국어과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국어과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을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첫째, 언어기능의 신장 강화
- 둘째, 문학교육의 강화
- 셋째, 언어교육의 체계화
- 넷째, 작문교육의 강화
- 다섯째, 가치관 교육의 강화

배경: 제1,2,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였던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이 제4차에 이르러 언어기능, 언어(지식), 문학(지식과 감상)으로 바뀌게 된 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보고 있다.<sup>6)</sup>

첫째, 제1,2,3차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어기능의 교육이 국어과 교육의 실제에서는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원인

5) 이대규, 국어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27집, 1985, pp.11.

6) 노명완, 앞의 책, p.13.

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그리고 엄격한 의미의 읽기 교육에 대한 교사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방법의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배경은 당시 우리나라 교육과정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학문중심교육과정이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론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역사로 보아서는 제3차 교육과정에 크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론의 영향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에 반영된 것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영향으로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특성을 명료화한다는 취지에서 국어과 교육 고유의 내용을 언어(문법)와 문학(이론)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주장의 하나로 이대규는 국어과 교육의 내용영역을 학문과 관련지었던 것이다.

#### 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은 국어교과의 성격 고찰에서 얻어질 수 있다. 국어교과는 수사론, 문학이론,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과이므로, 이 세가지 학문의 개념과 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sup>7)</sup>. 이러한 개념과 원리를 국어과 교육의 내용이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세가지 학문의 개념과 원리들이, 즉 국어과 교육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교육된 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국어과 교육의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국어과 교육의 목적은 단기적 국어과 교육과정인 국어과 수업의 목표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어교과는 그 내용이 수사론, 문학이론, 언어학이며, 그 교육의 목적은 각각 의사소통능력, 문학현상과 언어현상의 이해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각 영역 자체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은 다음부분들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1) 국어과 교육의 목적: 수사론, 문학이론, 언어학.
- 2) 국어과 교육의 내용: 수사론, 문학이론, 언어학

7) 이대규, 앞의 논문, pp.12-17.

### 3.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 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

브루너의 발견법에도 문제점은 많다. 첫째는 인지론 자체의 결함에서 기인되는 것, 둘째는 발견법의 원리가 교육의 원리 혹은 실제에로 치환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고, 후자의 문제점 즉 교육의 원리 및 실제에 관한 문제점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인 문제점: 학문구조에 관계있는 문제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sup>8)</sup>

첫째, 「학문의 구조」의 명확성에 관계되는 것으로 학문의 구조라는 것은 누구든지 일치하여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하나의 학문 영역이라는 것은 그 연구대상과 방법의 독자성에 의해 다른 것과 구별되나, 학문분야의 분류, 그것이 결코 고정된 것은 아니다. 유일한 학문의 구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영원히 불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학문의 구조와 「교과의 구조」와의 관계이다. 여기서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의 한 분야로서 구체적으로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이나 「교과」는 단위학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학문과 교과는 항상 일대일을 이루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양자가 일대일의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학문의 구조와 교과의 구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고등학교의 자연과학과 수학의 교과는 문제되지 않으나 인문교과와 사회교과는 문제가 된다.

셋째, 학문의 구조와 교육 내용 전체의 구조 혹은 교육과정의 구조와의 관계이다. 학문중심교육과정의 문제는 교육과정 전체를 조직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과정 부분으로서의 각 교과의 내용의 조직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또 일부 브루너가 보여준 사회교과의 수업과 같은 특수한 부분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다. 즉 「교과의 과정」인 내용전체의 구조에 대하여는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8) 金子孫時, 앞의 책, pp.94-99.

#### 나.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8가지)

이들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한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의 원리와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라는 주장에서 무엇을 이해할 것인가하는 '대상'을 찾아보면 학문중심의 국어교육에서는 국어과에서 배우는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즉 이해의 대상으로서 이들 학문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어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정을 살펴 보면 학문중심 국어교육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들 학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문중심 국어교육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이대규씨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들 이해의 대상으로서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을 국어과목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이들 학문의 원리와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현행 국어교과서의 내용을 학문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리해 국어과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이들 원리와 개념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문중심 국어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행하는 수업에서 국어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일선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하는 교사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한 점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위주의 수업', '원리위주의 수업'은 국어수업이 마치 수학시간에 공식을 외우고, 이 공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익힌 후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잘 조직화되고 공식화된 지식과 개념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을 교사는 국어를 잘 교수하였고, 학생들은 잘 학습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교부에서 발행한 교육과정 총람을 보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할 개념과 원리가 제시되어 있다.(참고자료 1)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1에서 제시한 목표는 6가지이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보면 1)표현, 이해중 말하기영역은 5가지, 듣기 영역은 4가지, 읽기 영역은 7가지, 쓰기 영역

은 8가지이고, 2) 언어에 나타난 내용은 7가지, 3) 문학에 나타난 내용은 13가지이다.

그리고 국어2에 나타난 목표는 4가지인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 보면 1) 현대 문학의 경우 25가지이고, 2) 작문에 나타난 내용은 11가지이며, 3) 고전문학에 나타난 내용은 26가지이며, 4) 문법에 나타난 내용은 12가지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수 있듯이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할 국어학, 국문학의 원리와 개념은 작문이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원리와 개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국어교육 총 수업시간은 약 2달 동안의 기간이다. 교사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원리와 개념을 가르쳐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2달 동안에 이렇게 많은 원리와 개념을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교육방법인 탐구와 발견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어교육에서 무엇을 이해할 것인가하는 이해의 대상을 분명히 재검토해야 한다.

국어의 경우, 단위 시간에 비해 배워야 할 개념이나 원리가 너무 많다. 그런데 학습자가 다른 교과에서 배워야 하는 원리나 개념까지 생각하면,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발견이나 탐구의 방법보다 오히려 맹목적인 암기위주의 교육이 된다.

2)'(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의 원리와 개념을) 기억하기 쉽게 하고'라는 것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들 학문중심 국어교육에서 주장하는 개념과 원리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무슨 학문이든지 일차적으로 그 학문에 대한 기초적 개념과 원리를 암기하는 것이 좋다. 그 학문의 기초적 지식이 없이는 단계적이고 위계적으로 조금씩 어려운 내용을 배워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이라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일차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차적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과 같은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학생이 너무 많은 원리나 개념을 학습하게 되고 교사가 그것들을 부족한 시간(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시간문제를 다른 부분 5를 참고하기 바람)에 탐구와 발견을 통한 원리와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일부 학문중심 교육과정  
에 유리한 학구적 학생들은 흔히 “선생님 진도 나가시죠”라는 말을 함으로  
써, 교사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발견과 탐구에 익숙한 학생들  
이어서 교사가 일일이 비학구적이거나 학업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노  
력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차적 단계를 학습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되며, 또  
한 이것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경우, 그 가르친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과정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가는 교사가 가르친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였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학문중심 국어교육에서 설정한 학문, 즉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의 원리와  
개념은 상당한 수준의 양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는 이들 학문속에 존  
재하는 원리와 개념을 학생들에게 교수하여야 하는데, 국어교육에서 주어지  
는 시간의 대부분을 이들 원리와 개념을 가르치는데 소비하여야 할 정도이  
다. 단편적인 조각으로 산재해 있는 이들 개념과 원리를 국어교사는 매년 반  
복해서 가르쳐야 하고, 또 어떤 개념과 원리는 어느 학년에서 가르쳤는지, 어  
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어떤 교사는 다른 교사가 가르쳤을 것이라고 추측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들 개념과 원리를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하였  
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도 않고 다음 개념과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다.

그리고 많은 원리와 개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국어교사에게 권위도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이들 학문의 원리와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  
고, 쉬운 것도 있지만 교사는 이들 학문의 원리와 개념, 내용에 대해 학생들  
보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들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원리, 개  
념을 충실히 가르치는 동안 교사는 교사가 할 일을 다한 것이고, 학생은 교  
사가 보다 많은 원리와 개념을 지닌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  
게 된다. 여기서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지혜, 경험, 가치관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교사가 이들 학문에 대한 원리나 개념을 보다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훌륭한 교사와 훌륭하지 않은 교사로 나뉘어진다.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점은 오직 가르칠 원리와 개념을 통한 지식만을 전제가 될 뿐이다. 교사에게 있어서 이 전제는 중요한 권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교사는 이들 학문의 기본 개념과 원리, 지식의 구조에 대해 보다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적재적소에 잘 이용함으로써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이외의) 학습사태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즉 일반적 전이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중요시되고 있다. 학문중심 국어교육에서 이대규(1985, 5쪽)는 수사론의 개념과 원리의 학습이 의사소통영역에 포함되는 표현력과 언어자료의 이해력을 발달시키며, 문이론과 문학과학의 개념과 원리의 학습이 문학작품 현상의 올바른 해석과 평가를 위하여 형성되며, 그리고 언어의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는 언어학이 국어교과의 영역이며, 내용이라고 한다. 즉 이들 학문의 개념과 원리만 알면 그 자신이 내세우는 국어교과의 목적, 의사소통, 문학작품 현상의 해석, 언어현상의 이해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위주의 수업', '원리위주의 수업'이 보여주는 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초,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의 첫 제재인 辛夕汀시인의 '소년을 위한 목가'를 가르칠 때였다. 필자가 그 시의 첫 행인 '소년아'를 읽자마자 한 학생이 '돈호법, 독립어'라고 외쳤다. 시를 감상하는데 수사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문장성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잠시 후 그 학생은 '더불어'의 뜻을 묻는 내 질문에 '불완전 동사'라고 말했다.<sup>9)</sup>

이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국어수업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게 되었다. 문제는 왜 이와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가 이와같은 방식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따라서 교사가 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게 된 결과 학생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어시간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돈호법'과 '불완전동사'를 학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9) 위호정, 국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의 과제, 교육개발 제10권 3호(통권 54호)1988, p.87.

시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원리와 개념을, 아니 이 부분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시의 원리나 개념조차도 아닌 국어학의 개념과 지식을 시를 감상하는데까지 전이하는 전이적 효과를 낳게 한 것이다. 이 주장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전이적 효과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4)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의)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해당 학문분야의 첨단에서 그 학문을 발전시키는 학자들이 하는 일이나 그 일의 성과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학문중심 국어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이나 그 성과를 알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자들이 하는 '탐구와 발견'과 같은 학문하는 태도와 학자들이 하는 학문적인 연구, 그리고 그 성과를 알 수 있게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래에 훌륭한 학자를 키우기 위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와 업적이다.

이 태도와 업적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 속에서 많은 정보와 현상들을 학생들이 모두 일일이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어학이나 국문학, 수사학에서 학자들이 하듯이 똑같은 경험과 연구를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럴 듯하나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대중적인 학교교육의 공간을 아류의 전문 연구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학교라는 사회는 대중적인 교육을 받아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집단의 전문 연구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또한 학생들은 모두 전문 연구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모두 전문 연구자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5) 시간경제적인 측면:■ 학교교육의 기간은 일정하다. 발견법은 학습자들

10) 김상옥, 신비평과 소설교육방법의 재검토, 박사과정 세미나 자료, 6월 20일 발표, p.6.

11) 이경섭, 앞의 책, pp.87-88.

에게 부여된 과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하고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과제에 내포되어 있는 규칙성과 관계성을 발견해 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발견법은 “시간 경제면에 그 문제를 지닌다”

그러면,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자가 정규수업시간에 배워야 하는 국어시간을 따져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세부적인 것은 자료 2 참고). 이 환산표에 의하면 한 학생이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배운 국어시간을 일수로 나누면 최소 62일부터 최대 69일 정도가 된다. 2달 동안 국어공부를 하고 나면 국어교육과정을 마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2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앞 부분에서 제시한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의 원리와 개념을 탐구와 발견의 방법으로 완전히 이해하며, 기억하게 되어, 학습상태에 전이의 효과를 지녀, 해당 분야의 첨단에서 그 학문을 발전시키는 학자들이 하는 일이나 그 일의 성과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국어교육이 아무 쓸데 없다는 無用論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습자와 교사가 이 2달에 해당하는 국어교육의 과정속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시간수 단위학교	단위학교 총학습시간	매시간 단 위	총학습시간 x매시간단위	60분으로 환 산
국민학교	1224	40분단위	48,960	816시간
중 학교	476	45분단위	21,420	357시간
高(인문최소)	476	50분단위	23,800	397시간
高(인문최대)	578	50분단위	28,900	482시간
高(자연최소)	374	50분단위	18,700	312시간
高(자연최대)	442	50분단위	22,100	368시간

<국어과 단위학교 총 수업시간 환산표(4차 교육과정 기준)>

\*국민학교 1,2학년은 도덕, 국어, 사회가 통합된 시간수이어서, 3학년-6학년까지 이들 과목에 대한 수업비율(1:3:2)을 토대로 하여, 국민학교 1,2학년 때 배운 국어시간을 산출하였음. (인문사회계 최소:1570시간, 최대:1655시간, 자연과정 최소:1485시간, 최대:1541시간)

6) 교사양성: 발전법에 의한 지도를 이상적으로 수행해 가기 위해서 교사는 가르칠 교과에 대한 정통,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발전법에 의한 지도 기술에의 숙달, 필요한 학습자료의 도입 등에 유능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가 유능하면, 어떤 교육환경의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들 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들 교사가 어떤 자질을 지니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찾아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즉 이들 교사가 어떤 교육을 받고서 대학을 졸업하여, 교단에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사상과 4차 교육과정의 기간동안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조사하는 것이다.

자료로 채택한 것은 인천교대와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는데, (참고자료, 3) 이들 두 자료를 비교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첫째, 교과 교육학 영역(국어과 교육과 관련된 영역의 이수하여야 할 학점이 9학점)이 교육학 영역(19학점)보다 이수하여야 할 단위학점수보다 적고, 국어학 분야와 국문학 분야(이들 두 학문의 필수학점 24학점, 선택 39학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로 나타난다. 교육학 영역은 20%, 국어학, 국문학 영역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국어 교과 교육학 영역은 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이것이 국어과 교육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즉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 밖에 국민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교과 교육학 영역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과 교수법: 학습지도안, 실제 교수 연습, 실제 연습에 대한 평가 및 토론. 국어과 교재연구: 중등 및 고등학교의 국어,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그 체계와 이론을 탐구함은 물론 시정 방안과 교수방법 등을 연구한다. 국어과 교육론: 국어교육의 개념, 국어교육사, 국어교육의 원리, 국어과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방법, 학습평가의 이론과 방법 등을 연구한다. 국어과 교육연구: 국어교육과의 일반적인 의미의 언어교육 및 그 연구에 관한 사실들을 주로 국내외의 여러 연구 논문에 관한 강독을 통해 지식을 터득하고 연구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을 배양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대학의 국어 교육과정도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주장한 교사양성의 측면에서 강조한 내용(전자)과 4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목(후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에서 강조한 가르칠 내용에 대해 정통한 교사는 후자의 교과목을 이수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발견법에 의한 지도 기술에의 숙달은 후자의 교과목을 검토해 볼 때, 9%라는 빈약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가 이 분야를 학습하고서 배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어학, 국문학 70%와 국어교과 교육학 영역 9%의 조정이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어교육이 교과 교육학으로서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문교부에서 간행한 교육과정 총람을 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을 할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외국에 비해 부족함을 볼 때 학습자에 대한 연구와 이들 영역에 대한 지도방법과 원리등에 연구의 부족함은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4차에 적용한 국어과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행해졌고, 학문적인 원리와 개념만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7) 교과내용의 구조화: 기본개념 구조의 조작양태에 따라 같은 교과에서도 다양한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있어서 문제는 어느 것이 과연 각 단계의 학습자에게 가장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거의 없으며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와 교과간의 구조 즉, “어려 문학 상호간의 구조 발견에는 전망이 흐리다.” 또한 “어떤 교과는 구조에 의한 지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간과한 중요한 변인은 앞 부분에서 조금 언급하였지만, 바로 학습자에 대한 영역이다. 객관적인 지식과 그 지식의 구조화, 지식의 내재적 가치를 정당화, 지식의 내용 및 범주를 축소화<sup>8)</sup>한 점에서 학습자가 학습하여야 할 지식을 완성시킨 점은 장점이나, 이 지식을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과내용을 구조화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즉 인간의 인지적, 정의적, 심리-운동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함이 없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배치함으로 인해 국어과 교육과정을 인간과 독립된 내용물로 채운 교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교과내의구조, 즉 국문학, 국어학, 수사학에 대한 상호간의 구조발견에 대한 연구없이 개별적인 학문을 국어과 교육내용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하여금 어떤 교사는 국어학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고, 어떤 교사는 국문학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게 된 것은 국어 교과내의 구조에 대한 관점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8) 학습내용의 고도화: 학습내용 조직에 대한 브루너의 사설하에서 학습내용의 고도화를 발견법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각종 프로젝트를 적용시킨 결과에서는 지적 능력이 높은 아동들에게 유리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 전개에는 불우하고 비학구적이거나 학업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별조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과정의 대부분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나 학구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 같이 보인다.

이와같은 평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적용한 프로젝트의 결과이지만, 이것을 적용한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주장하

12) 윤병희, “현대 교육과정 이론의 이해를 위한 한 시도: 인식론적 고찰을 중심으로”(교육과정 연구 제6집, 19887, pp.171-221), 노명완, 국어과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89-9, 22쪽에서 재인용.

는 발견과 탐구의 과정을 생략한 과정을 가르친 결과 국어가 점차 학습자에게 어려운 과목으로 남게 된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이런 현상을 잘 드러낸 것이다.

문학교육에 대한 비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문학을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으로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 뉴크리티시즘 비평이다. 이 비평의 성격은 문학연구를 되도록 과학화함으로써 마치 과학자가 정답을 찾듯이 문학에서도 정답 혹은 그 비슷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비평적 접근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도입된 후 중고등학교의 문학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이념으로 자리를 굳힌 듯하다고 본다. 즉 상상이니, 플롯이니, 심상이니, 모호성이니, 역설이니, 긴장이니, 구조니 하는 용어들을 학습하면 문학작품 현상의 올바른 해석과 평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학교육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에게 무슨 과목이 가장 어려우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흔히 “국어예요”라는 거침없는 대답을 듣게 되는 일반적 현상을 낳게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온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학문의 원리, 개념 -----> 이해의 용이 -----> 기억의 용이  
(발견과 탐구)

-----> 전이효과 -----> 사회에 유능한 인재(학자) 양성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의 원리 및 개념 -----> 정확한 이해의 불가능  
(무분별한 선택, 양의 방대) (시간부족, 교사양성교육과정문제)

----> 맹목적인 암기----> 전이 불가능-----> 학습자: 국어=어려운 과목  
(교과내의 구조화 실패) (학습내용의 고도화)

#### 4. 결 론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제4차라 한다)은 브루너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을 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4차는 기존의 개정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보여준 것이고, 지금도 일선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교사들이 5차 교육과정에 대해 무척 당황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은 어쩌면 4차가 교사에게 그만큼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에 대한 지식을 암기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만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브루너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브루너의 교육과정을 실제 적용하여 구성한 4차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어교육과정을 위한 모델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고민을 표출한데에 불과한 것이다. 즉 수학과 자연과학의 경우 브루너의 이론이 적합하지만 국어교과의 경우에 적용한 것은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어학, 국문학, 수사학에 대한 학문의 구조를 하나의 교과속에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구조와 탐구와 발견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임이 드러난 것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4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5차, 6차에도 영향을 미치며,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으면서도 국어과 교육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문제는 비판을 받고 있기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국어과 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원리와 개념들, 그리고 방법론 등 좋은 점을 취해서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를 확립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즉 국어학, 국문학의 원리와 개념 중에서 국어 교육(여기서의 국어교육은 언어사용기능의 신장)과 관련되는 항목을 추출하고, 학문중심의 방법과 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대학의 국어과 교육이 교과교육으로서 바람직한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국어교육과 국어학, 국문학과와의 공통성과 변별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상욱(1992) 신비평과 소설교육방법의 재검토, 박사과정 세미나자료, 6월20일 발표.
- 노명완 외 2인(1989) 국어과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RM89-9.
- 문교부(1986)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문교부, 1984. 교육과정총람, 법제연구원.
- 박영록외 2인(1991) 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한 국어교육평가체제연구(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1-19-3.
- 위호정(1988) 국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의 과제, 교육개발 제10권 3호(통권 54호).
- 이경섭(1990) 교육과정 유형별 연구, 교육과학사.
- 이대규(1985) 국어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27집.
- 이상욱(1992) 문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대비평과 이론」 봄 3월호.
- 이홍우(1987) Bruner; 지식의 구조, 교육과학사.
- 이홍우(1992) 교육과정 탐구, 박영사.
- 한국교원대학교(1985.5) 연구보고서, 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1986) 제5차 초,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 연구보고RR86-45
- 金子孫市 編著(1976), 現代教育課程論, 『教育學 研究 全集 8』, 第一法規 出版社.

<참고자료 1 : 고등학교 국어 1과 2에서 배워야 할 내용>

\*\*\* 국어 1의 내용\*\*\*

1) 표현, 이해

-말하기-

- 가) 화제와 주제에 맞는 소재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말한다.
- 나) 상황에 따라 논리가 분명하게 말하거나 정감있게 말한다.
- 다) 사실을 공정하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여 말한다.
- 라) 성량, 속도, 어조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며 말한다.
- 마) 품위있는 자세와 동작을 취하며 말한다.

-듣기-

- 가) 선택된 소재들이 화제나 주제에 맞는지 판단하며 듣는다.
- 나) 의견, 주장, 결론 등의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듣는다.
- 다) 말하는 이의 판단이나 평가가 공정한지 판단하며 듣는다.
- 라)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품위있는 자세로 듣는다.

-읽기-

- 가) 글의 줄거리, 요지, 주제 및 소재를 파악하며 읽는다.
- 나) 글의 짜임,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다.
- 다) 여러가지 표현법을 이해하고, 지은이의 표현의도를 파악하며 읽는다.
- 라) 글의 내용을 바르게 평가하며 읽는다.
- 마) 생략된 내용을 문맥을 통하여 추리하며 읽는다.
- 바) 글의 종류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사) 여러 가지 내용의 책을 고루 많이 읽는다.

-쓰기-

- 가) 체험이나 상상을 소재로 하여 정서적인 글을 짓는다.
- 나) 사실, 지식, 의견 등을 내용으로 하여 논리적인 글을 짓는다.
- 다) 주제에 맞는 소재를 찾아 글을 짓는다.
- 라) 짜임이 균형 있고 통일성 있게 글을 짓는다.
- 마) 문단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글을 짓는다.
- 바) 논리, 정서, 사실, 지식, 의견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글을 짓는다.
- 사) 여러 가지 표현법과 진술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짓는다.
- 아) 내용에 맞는 글의 형식을 선택하여 글을 짓는다.

2) 언어

- 가)문장의 구조와 그 성분의 확장을 안다.
- 나)품사의 전성과 그 기능을 안다.
- 다)단어의 구조를 알고 형태를 분석한다.
- 라)음운의 종류와 그 체계를 안다.
- 마)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을 안다.
- 바)방언과 그 분포에 대하여 안다.
- 사)국어사의 개략을 안다.

### 3)문학

가)소설 속의 모든 요소들이 주제를 향하여 통일되어 있음을 알고, 거기 동원된 삽화나 사건들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며, 사건의 필연성과 우연성의 효과를 안다.

나)인물의 성격이 단순한가 복잡한가, 개성적인가 전형적인가, 성격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한다.

다)소설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작품을 통하여 파악한다.

라)시점에 따라 소설의 진술 방식을 구별한다.

마)공연 예술의 대본으로서의 희곡과, 영상 예술의 대본으로서의 시나리오가 지닌 차이를 안다

바)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한 여러 인물들의 의견과 태도가 다름에 따라 어떤 말을 하는지에 흥미를 느낀다.

사)소리와 뜻의 어울림을 파악함으로써 시의 음악성과 암시성을 이해한다.

아)시 작품에서 서정적 목소리의 주인을 파악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자)문학적 산문과 실용적 산문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차)한 인간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사이의 갈등 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에 흥미를 느낀다.

카)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에 흥미를 느낀다.

타)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및 현대 작품을 읽고 이해한다.

파)한국 문학의 발달 과정과 세계 문학의 대체적인 흐름을 안다.

### \*\*\*국어 2의 내용\*\*\*

#### 1)현대 문학

가)한국 현대 문학의 성립과 그 발달과정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나)문학 작품의 유형과 그 갈래 체계의 기본원리를 안다.

- 다) 문학 작품은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다.
- 라) 세계 문학사에서 전개되어 온 근대 이후의 대표적인 문학 운동의 기본 정신을 그와 관련된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이해한다.
- 마) 수필은 본질적으로 필자가 독자에게 자신의 느낌이나 신념과 태도를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문학 양식임을 안다.
- 바) 교훈적 수필, 희극적 수필, 서정적 수필, 서사적 수필 등 수필 문학의 다양한 진술 방식들을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이해한다.
- 사) 소설은 본질적으로 작자가 독자에게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는 문학 양식임을 안다.
- 아) 허구와 사실과 진실 사이의 기본관계를 알고, 대표적 근대 문학 양식으로서의 소설문학의 위치를 파악한다.
- 자) 소설 구성에 쓰인 여러 삽화나 사건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구조 속에 들어가는 방식을 알고, 그 다양한 구성 방식이 시대 및 사회적 변천에 따라 발전되어 온 양상을 대표적 작품을 통해 파악한다.
- 차) 소설에서 작가가 창조해 낸 인간의 성격 유형과 그 성격을 드러내는 여러가지 방식이 시대 및 사회적 변천에 따라 변모되어 온 양상을 대표적 작품을 통해 파악한다.
- 카) 배경의 개념은 역사 및 사회적 배경으로서의 인간 세태나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작자의 인생 태도와도 관련됨을 알고, 소설의 배경이 시대 및 사회적 변천에 따라 변모되어 온 양상을 대표적 작품을 통해 파악한다. (이하 내용이 너무 많아 지면관계로 생략)

<참고 자료 2: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어수업 시간>

<국민학교 국어 시간>

학 년	1	2	3	4	5	6
국 어	187	187	238	204	204	204

\*1,2학년 시간은 도덕, 국어, 사회가 통합된 것인데 국어시간의 비중이 크므로, 374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

<중 학교 국 어 시 간>

학 년	1	2	3
국 어	136	170	170

<고 등 학 교 국 어 시 간> \*숫자는 3년 동안 배울 단위 시수

과 목	공 통 필 수	인문, 사회과정	자 연 과 정
국어(1,2)	14 - 16	14 - 18	8 - 10

<참고 자료 3: 국어 교육과 교과 과정(한국 교원대의 경우)>

1. 국어교육 분야

국어과 교수법, 국어과 교재 연구, 국어과 교육론, 국어과 교육연구.

2. 국어학 분야

국어학 개설, 국어 음운론, 국어 정서법, 국어 문법론, 국어 의미론, 중세 국어 문법, 국어학사, 중세 국어 강독, 국어사, 국어학 특강, 교육 국문법,

3. 국문학 분야

국문학 개론, 한국 고전 소설론, 국문학사, 시조-가사론, 향가-여요론, 한국 한문 강독, 한국 한문학사, 한국 고전 문학 강독, 한국 구비 문학론, 국문학 특강.

4. 현대 문학 분야

한국 현대 문학사, 한국 현대 소설론, 문예 비평론, 한국 현대 시론, 한국 현대문학강독, 문예작품기술론, 한국작가론, 현대문학특강, 문예사조론.